

한성대신문

1976년 12월 15일 창간

www.hansungnews.com

2025년 3월 24일 월요일 제609호

지면안내 **03** 사회 반박되는 정책에 흠날리는 청년 고용 **05** 사람사 세상을 등진 청년, 다시 세상과 마주하다 **06** 학술 GTX가 선사하는 '혁명' **08** 광고 제19회 사진공모전 현상공모

탄핵 정국 속 본교 재·졸업생 찬반 집회 열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하면서 본교 재학생 및 졸업생이 주최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가 동시에 열렸다. 지난 6일 오후 2시 찬성 측은 본교 정문 앞에서, 탄핵 반대 측은 성북천 분수마루광장에서 집회를 진행했다. 양측 재학생 및 졸업생 참여자 수는 찬성 측 20명, 반대 측 6명가량이었으며, 외부인도 자리했다. 찬반 집회 진행 장소가 달라 물리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탄핵 찬성 집회는 ▲취지 설명 ▲졸업생 입장 발표 ▲재학생 입장 발표 ▲참가자 현장 발표 ▲기자회견문 순으로 진행됐다. 찬성 측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12월 3일 윤석열의 군사 쿠데타 시도는 민주 시민과 학생들의 피로 쟁취한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반민주적 공격이었다며 '우리는 윤석열을 탄핵하고 극우 세력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싸울 것'이라고 집회의 취지를 밝혔다. 집회에 참가한 최영은(ICT 4) 학생은 "정치적 입장 표명을 꺼리는 사회 분위기가 있지만, 이런 입장을 밝히는 것 역시 대학생의 의무라고 생각해 참여하게 됐다"며 "마땅히 탄핵했어야 할 일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고 조속히 이뤄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탄핵 찬성 집회 참가자들이 본교 정문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같은 시각 탄핵 반대 집회는 ▲학생증 퍼포먼스 ▲국민의례 ▲개회사 ▲졸업생 연사 ▲폐회사 등으로 이뤄졌다. 반대 측은 시국선언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이후 대통령 담화문과 체포 과정에서 자행된 불법적인 일들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이유를 알 수 있게 됐다'며 '대한민국의 주권이 위협받고 자유 민주주의 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 목소리 내고자 시국 선언문을 작성하게

됐다고 발언했다. 집회를 주도한 문기업(컴공 4) 학생은 "청년의 한 사람으로서 대통령이 억울하게 당하는 부당한 현실을 목과 할 수 없었다"며 "대통령 체포 과정 등에 있어 헌법재판소가 편향된 시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다"고 언급했다.

한편 대학가 전반의 탄핵 찬반 집회가 물리적 충돌로 번지기도 하며 안전상의 우려가 제기됐으나, 본교는 큰 충돌 없이 집회가



▲성북천 분수마루 광장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진행하는 참가자들

마무리됐다. 당초 탄핵 찬성 집회가 학내 공간에서, 탄핵 반대 집회는 우촌관과 미래관 앞에서 각각 진행될 계획이었다. 그러나 대학본부의 장소 변경 조치에 따라 계획이 수정됐다. 『한성대학교 학칙』 제51조에서 '집단지행·성토·시위·농성·등교거부·마이크 사용 등으로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학본부는 이번 조치가 학칙뿐만 아니

라 학생의 안전과 수업 환경 보장을 위한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앞으로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동일한 기준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중집(학생장학팀) 팀장은 "대자보 부착과 같은 학내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추후 이 같은 집회가 열릴 때도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대응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승희 기자 sun2sideup03@naver.com

1차 대의원총회 개최, 예산안 및 세칙 개정안 모두 가결

'2025학년도 상반기 1차 정기 대의원총회(이하 총회)'가 지난 20일 미래관 DLC에서 개최됐다. 총회에서는 ▲2025학년도 상반기 예산안(이하 예산안) 심의 ▲2025학년도 총학생회칙(이하 총학생회칙) 변경 심의 ▲2025학년도 감사 시행 세칙(이하 감사세칙) 변경 심의 ▲창의융합대학(이하 창의대) 선거 시행 세칙(이하 선거세칙) 변경 심의 등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예산안 심의 안건은 재적 대의원 23명 중 과반 이상의 찬성을 받아 모두 통과됐다. 또한 총학생회칙 변경 심의 안건과 감사세칙 변경 심의 안건은 각각 재적 대의원 23명 중 21명, 22명이 찬성해 개정안이 이뤄졌다.

개정된 총학생회칙과 감사세칙, 선거세칙은 가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며, '2025학

년도 상반기 감사와 '2025학년도 학생자치기구 재선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총학생회칙, 감사세칙의 자세한 개정사항은 본교 홈페이지 낙산의 메리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총학생회 'WE:RO'의 상반기 예산은 총 26,079,160원이다. 세부항목으로는 ▲대동제 ▲금연구역 캠페인 ▲무로 법률 상담 ▲학생 예비군 필기자료 공유 사업 ▲찾아가는 총학생회 ▲일상 운영비 ▲사업 예비비 등이 있다.

총대의원회(이하 총대) '청월'은 총 4,968,890원을 인준 받았다. ▲재선거 ▲대의원 홍보 부스 ▲대의원 총회 ▲대의원 학교 ▲우수 상임위원 선정 ▲우수 대의원 선정 ▲일상 운영비 ▲사업 예비비 등이 세부항목으로 구성된다.

학생복지위원회 '여운'은 총 4,038,850원을 승인받았다. 예산안 세부항목에는 ▲대여사업 ▲주차권 ▲간식사업 ▲일상 운영비 ▲사업 예비비 등이 포함됐다.

디자인대학 학생회 'Synergy'의 상반기 예산은 총 1,120,350원으로 책정됐다. 예산은 ▲대여 사업 ▲짜신포스트 ▲만우절 ▲학생회 홍보 사업 ▲일상 운영비 ▲사업 예비비 등에 쓰일 예정이다.

IT공과대학 '온울'은 총 1,364,400원을 인준받았다. 이는 ▲만우절 ▲짜신포스트 ▲후배 ▲E-스포츠대회 ▲물품 대여 ▲학생참여 홍보확대 ▲일상 운영비 ▲사업 예비비 등이 포함된 금액이다.

창의대 학생회 '서로'가 승인받은 금액은 총 1,228,900원이다. 예산안 내 항목에는 ▲

만우절 ▲E-스포츠 대회 ▲카카오톡 채널 개설 ▲창용 짜신포스트 ▲북토크 콘서트 ▲물품대여 사업 '서로빌리지' ▲프린트 대여 사업 개선 ▲일상 운영비 ▲사업 예비비 등이 있다.

총학생회칙 제7장 제45조, 제9장 제53조, 제10장 제58조, 제11장 제66조, 제12장 제72조는 모두 개정안이 이뤄졌다. 해당 조항들은 기존에 당선자의 임기를 규정하는 선거 시행세칙(이하 선거세칙) 제10장 제81조에 대한 내용을 참조하고 있었으나, 내용상으로 선거세칙 제10장 제83조 당선자의 임기를 언급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을 반영한 결과다.

총대는 감사세칙 제5조 제1항과 제3항에 대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기존에는 총대의장이 중앙감사위원장을 겸임하고, 중앙감

사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총대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돼 있었다. 개정 후에는 총대 감사국장이 중앙감사위원장 직을 맡고, 중앙감사위원장이 직무 수행 불가 시 총대의장이 이를 대행하도록 변경됐다.

창의대 선거세칙 제12조 제2항 개정도 이뤄졌다. 기존에 후보 등록 후 사퇴, 박탈, 낙선 등의 사유로 출마하지 못한 후보는 내년 재선거에 다시 입후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으로 사퇴에 관한 내용이 삭제됐다. 이는 학생회칙 제8조 제3항이 동일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기존 창의대 선거세칙의 위헌 요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승희 기자 sun2sideup03@naver.com

상빌 청소상태 불만, 점검 및 교육 강화 예정

상빌리지(이하 상빌) 호실 내 청소상태에 대한 불만이 상빌 입주생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에 상빌 행정실 측은 기존에 진행던 1·2차 청소점검뿐만 아니라 3차 청소점검까지 계획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청소 교육 관련 내용도 입주 후 진행되는 오리엔테이션 자료에 자세히 첨부할 예정이다. 입주생은 입주 후 상빌 호실 내 남아있던 쓰레기와 관련해 불만의 목소리를 드러냈다. 지난 2일부터 3일까지 신규로 입주한 학생들 집대나 책상 등 호실 내 가구 주변에 다수의 쓰레기가 방치돼 있었다고 토로했다. 장유진(인문 1) 학생은 "입주 당시 집대나 책상 사이로 쓰레기가 쌓여있었다"며 "청소상태나 위생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

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최지안(인문 2) 학생은 "냉장고와 책상, 침대 주변에 종이, 마스크, 사진, 수건 등 여러 쓰레기가 남아있었다"고 덧붙였다.

청소상태에 대해 상빌 행정실 측은 추가적인 청소점검까지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상빌의 청소점검은 학기 중 1회, 방중 2회 진행된다. 호실 내 생활수칙 준수, 청소점검이 실시되는 대면 점도가 학기당 1회 이행된다. 최근 청소점검은 지난 2월 입주생의 전원퇴사 이후 2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청소점검뿐만 아니라 1년에 총 6회 호실 내부 소독도 진행된다. 임진경(행복기숙사 유한회사) 행정실장은 "기숙사 위생을 위해 살충 및 살균 분무소독을 시행 중"이

라며 "1·2차 청소점검과 더불어 3차 청소점검까지 계획 중"이라고 전했다.

또한 입주 후 진행되는 오리엔테이션에서 청소 교육을 더욱 강화하겠다고도 설명했다. 임 행정실장은 "청소 교육도 오리엔테이션 자료에 구체적으로 첨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집대나 책상 등 입주생이 사용하는 비품, 벽지 및 장판은 노후화되기 때문에 매번 수선이 어렵다는 입장을 취했다. 임 행정실장은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을 유지보수하기 위해 부과하는 관리비인 장기수선충당금을 적절히 적절한 시기에 교체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석희 기자 sukhee121@naver.com

SW코딩라운지 신설

SW코딩라운지(이하 라운지)가 지난 21일 공학관 A동 옆에 개관했다. 라운지는 학생들의 산학협력 프로젝트 및 조별 활동 수행 등을 위한 공간이다. 라운지 내부에는 세미나실을 비롯해 다양한 공간이 존재하며, 라운지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전 예약이 필수적이다.

라운지 신설은 지난해 5월 본교가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이하 SW중심대학) 사업으로 선정된 것의 일환이다. 해당 사업에서는 신기술 분야 기업과 협약을 맺고 수업 및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되는데 이를 위해 신설된 공간이 라운지다.

라운지는 ▲VIP미팅룸 ▲세미나실 ▲휴게공간 등으로 이뤄져 있는 공간이다.

세미나실은 총 13곳이 있으며 이중 12인용 세미나실이 5곳, 8인용 세미나실이 8곳이다. 세미나실과 VIP미팅룸에는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대형 TV가 구비돼 있다. 염정훈(SW중심대학사업단) 차장은 "세미나실은 수업 및 프로젝트에 우선 배정되도록 한 뒤 일반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예약 방법은 추후 안내 예정"이라고 말했다.

라운지 이외에도 다양한 공간 및 시설이 설비될 예정이다. 염 차장은 "SW인재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SW 전용 교육공간 및 기자재 확충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석희 기자 sukhee121@naver.com



▲새터 2일차 저녁, 응원전을 관람하며 열광하는 학생들

대학생활의 첫 페이지를 넘기다

2025학년도 새 학기의 시작과 함께 학내 행사가 연이어 열렸다. '새내기 새로배움터(이하 새터)'의 뒤를 이어 '2025학년도 1학기 동아리 박람회(이하 동아리 박람회)'가 개최됐다.

새터가 지난 2월 24일부터 26일까지 강원도 평창군의 '알펜시아'리조트에서 2박 3일간 개최됐다. 이번 행사에는 ▲크리에이티브인문예술대학 ▲미래융합사회과학대학 ▲디자인대학 ▲IT공과대학 ▲창의융합대학 등이 자리했다.

새터 첫날에는 ▲개회식 및 안전교육 ▲학생회 및 교내기구 소개 ▲동아리 공연 등이 진행됐다. 동아리 공연에는 ▲왕산악 ▲들불 ▲탈패 ▲낙산극회 ▲TRIAx ▲NOD ▲4호선마이크 등의 정동아리가 참여했다. 이후 초청가수 '에일리'의 공연도 이어졌다.

이튿날은 ▲단과대학별 레크리에이션 및 학장님 인사말 ▲총장님, 교학부총장님 인사말 ▲총학생회 행사 ▲장기자랑 및 응원전 등의 행사가 이뤄졌으며 초청가수 '호미들'의 공연으로 마무리됐다.

새터에 참여한 조용민(사회과학 1) 학생은 "새터에서 학교와 동기들에 대해 알아가겠다는 하나의 목표를 갖고 참여하다 보니 단합이 잘 이뤄진 것 같다"며 "동기들과 빠르게 친해지는 과정을 통해 좋은 추억을 쌓을 수 있어 기쁘다"고 밝혔다. 새터를 주관한 이영재(사회과학 3) 총학생회장은 "신입생이 대학에 첫발을 내디디며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1, 2일 차 모두 연인 공연을 진행하는 등 행사 구성과 공연 준비에 더욱 신경 썼다"며 "새터를 통해 신입생이 앞으로의 대학 생활을 원활하게 준비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2025학년도 1학기 동아리 박람회(이하 동아리 박람회)'는 3월 5-6일 양일간 미래관과 우촌관 앞 잔디광장에서 개최됐다. 동아리 박람회는 신입생 및 재학생이 분과별로 다양한 동아리를 체험함으로써 적극적인 동아리 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개최됐으며, 본교 구성원 누구나 참여할 수 있었다.

동아리 박람회는 양일 모두 오후 12시부터 6시까지 운영됐다. 동아리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 'RAUM'의 부스를 비롯해 ▲공연예술분과 왕산악, 들불, 탈패, 한음, 낙산극회, TRIAX, NOD, brillante, 4호선마이크 ▲종교분과 CCC, UBF, IVF ▲학술분과 H-LEP, 샘들, FLASH, DC&M, ASPIRE, TeamODD, TIME ▲체육분과 HTM, TURTLES, UP, 피닉스, 버팔로, 한검회, 한 일 ▲평면예술분과 P.I.G, 이무기, 영화다숨, 매나니로, 한성타이포 ▲취미봉사분과 유스호스텔, 해랑사리우, 별조각, 낭동이가 부스를 운영했다. 버스킹존에서 왕산악과 들불의 공연도 함께 진행됐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동아리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 부스에서는 참여 학생들이 동아리 박람회 팸플릿에 스티커를 부착해 가져오면, 그 개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상품을 지급했다. 각각 다른 분과에 소속된 동아리의 스티커를 3개 이상 모으면 비교과 포인트 10pt가 지급되고, 6개 이상을 모으면 상품 추천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었다. 추천을 통해 ▲3in1 충전기 4개 ▲텀블러 5개 ▲상상부기 인형 5개 ▲카페 '오프' 5천 원권 20장이 지급됐다. 또한 본교 곳곳에 숨겨진 보물을 찾는 보물찾기 이벤트를 통해 추가적으로 상품 추천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었다.

이번 동아리 박람회는 많은 학생들로 하여금 동아리와 더욱 친숙해지는 계기를 제공했다. 행사에 참여한 이제형(AI응용 1) 학생은 "동아리 박람회가 각 동아리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어 도움이 됐다"며 "선배들과도 친밀감을 쌓아나가는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허지성(IT 1) 학생은 "여러 동아리의 부스를 돌아다니며 동아리에 대한 정보를 잘 알 수 있었다"고 전했다.

동아리 박람회를 주관한 김필중(컴공 3) 동아리연합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참여 학생들로 하여금 각 분과의 동아리들을 다양하게 체험하는 데 초점을 맞춰 행사를 준비했다"며 "탐험이라는 주제에 맞게 신입생들이 학교에 대해 더 많이 알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다"는 소감을 밝혔다.

박석희 기자 sukhee121@naver.com
이승희 기자 sun2sideup03@naver.com



▲'낙산극회' 부스에서 부원들이 연극을 선보인다.



▲'한검회' 부스에서 학생들이 검도를 배우고 있다.



▲가수 '에일리'가 노래를 열창한다.



▲랩을 하며 관객의 호응을 유도하는 가수 '호미들'

반복되는 정책에 흘날리는 청년 고용

“뽑아주신다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구직 현장에서 익숙하게 들리는 말이지만, 청년들이 이러한 다짐을 실현해 볼 기회조차 허락되지 않는 요즘이다. 지난 1월 고용노동부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청년 고용 정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매년 반복되는 보여주기식 방안에 올해도 정책이 효과를 보기 어려울 것이라는 비판이 이어진다.

청년 고용률은 해마다 하락세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15~29세 대상의 청년 고용률은 2022년 46.6%였으나 매년 지속 하락해 2025년 1월 44.8%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올해 청년 실업률은 6.0%로 상승했다. 김봄이(한국직업능력연구원 청장년직업능력연구센터) 센터장은 “고용률, 실업률 등의 지표를 보지 않아도 과거에 비해 첫 구직기간이 증가하는 등 청년들이 체감하는 구직의 어려움이 심화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청년 고용을 촉진하고자 매년 대책을 수립 및 시행하고 있다. 2004년 정부는 처음으로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한 법령을 제정했다. 현재 정부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이하 청년고용법)에 따라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지원하고 청년 고용 증진을 위한 사회·경제적 기반을 조성할 의무를 갖는다. 청년 실업을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산업 경직화 등으로 인한 사회적 현상으로 바라보고 국가가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임은택(계명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4차 산업혁명 이후 산업 구조가 빠르게 변화하고 일자리가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났다”며 “이에 개인이 해결하기 어려운 일자리 관련 문제를 국가의 과제로 설정한 것”이라고 전했다.

올해 고용노동부의 청년 고용 정책은 ‘대학’과 ‘맞춤 서비스’에 방점을 두고 있다. 정책은 ▲‘쉬웠음’ 청년 ▲일경험 ▲빈자리 ▲고용센터 혁신 등의 분야로 구분된다. 먼저 ‘쉬웠음’ 청년 발굴을 위해 지난해 8개 대학에서 시범운영했던 ‘청년고용을케어’를 통해 일상회복 지원 등을 이룰 계획이다. 또한 정부가 선정한 청년 친화기업인 ‘청년일자리 강소기업(이하 강소기업)’의 지원 확대를 통해 일경험을 지원한다는 방안이 마련됐다. 빈 일자리 업종에 취업하고자 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훈련수당 등 금전적 지원도 이뤄진다. 고용센터 혁신은 대학 내 취업 지원 기관인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와 관계 부처·기관 협업을 통해 통합 서비스를 진행할 방침이다. 변금선(서울연구원 도시모니터링센터) 부연구위원은 “기존에는 정부가 대학 졸업 후 일정 시간이 지난 청년을 정책 대상으로 설명했으나, 이번 정책은 졸업 전부터 청년에게 취업 준비를 지원한다”며 “연령을 하향시켜 청년의 직업 안정성을 높이고 경력 관리를 도우려는 정부의 목표 설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정책이 대학생에게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에도 형식적인 지원에 그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청년고용을케어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미취업 졸업생을 발굴해 특화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선제적으로 제공하는 종합 상담 프로그램이다. 기획재정부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년고용을케어를 시범운영한 8개 대학 대부분이 일자리 추천 상담 등 일차적인 취업상담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했다. 미취업 졸업생 또한 졸업생 상담 제공과 같은 전형적인 취업상담을 가

장 많이 제공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센터장은 “시범운영 기간 동안 권역별로 선정된 시범대학에서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했으나, 일차적인 취업 상담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된 한계를 갖는다”고 말했다.

일경험을 지원하기 위한 기업과의 협력도 지속적인 청년 일자리 확대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제기된다. 강소기업은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인증하는 임금, 일과 개인 삶의 균형, 고용 안정 등의 측면에서 청년이 선호하는 우수 기업이다. 그러나 선정된 강소기업의 청년 고용 환경이 관리되지 않으며, 인력 수급을 위한 방편에 머무르는 실정이다. 지난 10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해철(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강소기업에서 발생한 산업 재해를 근로복지공단에서 승인한 건수는 2021년 214건, 2022년 229건, 2023년 286건에 달한다.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강소기업 선정이 철회돼야 하지만, 같은 기간 강소기업 선정이 취소된 곳은 단 한 곳에 불과했다. 임 교수는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 환경을 만들겠다는 정책 목적으로 강소기업이 매년 1,000곳 이상 선정되고 있지만, 강소기업은 고용창출장려금 등의 이득을 취하려는 태도만 보이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문가들은 매년 반복되는 청년 고용 정책이 특수성을 띠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청년고용법이 최초로 제정된 2004년부터 상담 지원, 현금성 복지, 일경험 제공 등의 대책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각종 취업 상담과 청년고용촉진장려금제도, 공공부문 정원의 100분의 3 이상 청년 신규채용 권고 등 금전 정책과 유사한 내용으로 시행된 바 있다. 변 부연구위원은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와 시장에서 제공되는 일자리 부조화가 발생하는 상황에도 적극적인 청년 고용 정책이 마련되지 않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결국 정부의 정책이 청년을 불안정한 고용 환경에 내몰면서 구조적 문제를 외면한 ‘미봉책’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정부는 청년 일자리의 질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고용을 창출해야 한다. 제도 개선과 기업의 책임 강화를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정부 정책은 1~3년짜리 단기 정책을 양산하며 기존 일자리에 청년을 끼워 맞추는 지적이다. 김 센터장은 “청년 고용을 위한 정책이 단기 성과에만 집착하며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근본적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맞춤 서비스 지원이 이뤄지지 못하는 문제의 원인으로 상담사의 전문성 부족이 꼽힌다. 대학이 ‘쉬웠음’ 청년을 발굴하고자 한다면 심리적 상담과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도와야 하지만, 다수에게 유사한 고용 정보만 지원되기 때문이다. 대학 내 상담사가 정부의 교육을 받고 투입되지만 통상 1개월 미만으로 훈련하고 투입된다. 임 교수는 “대학 내 상담 프로그램은 기업의 현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담사들로 운영되며 기업이 요구하는 역량이나 정보를 청년에게 충분히 전달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강소기업 선정 및 관리 기준이 부실하다 보니 허술한 조건 속에서 강소기업이 지정되는 상황이다. 강소기업 결정 요건은 공고

일 기준 ▲임금 체불사유주명단 공개 기업 ▲최근 2년 이내 산업재해 발생 건수 공표 기업 ▲최근 2년 이내 부당하고 판정 확정 기업 등 단계적인 지표로 판단된다. 이때 산업재해 발생 건수 지표는 사망재해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하거나, 같은 규모·업종에 비해 사망만인율이 높은 사업장 등이 명단 공표 대상이 된다. 청년 1명이 사망해도 강소기업으로 선정될 수 있다는 의미다. 김 센터장은 “일부 결격 사유가 있는 기업이 교묘히 범망을 우회해 강소기업으로 인정받기도 하나, 이를 효과적으로 규제할 기준이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청년 고용 정책이 형식적으로 반복되는 것은 변화하는 취업난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점에 기인한다. 최근 실무 경험이 있는 구직자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청년들이 실질적인 직무 훈련 기회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취업을 위한 실무 학습 확원비 지원 등 개별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변 부연구위원은 “청년이 원하는 것은 단순한 지원금이 아니라, 실무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실질적 경험이지만 정책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전했다.

정부의 장기적인 정책 목표가 부재한 점이 청년 고용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타난다. 5년 단위로 구성되는 각 정부가 서로 다른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가시적인 지표 개선과 단계적인 성과를 내세우는 경향을 보인다. 그 결과 상담 건수 증가, 현금 지원 확대, 강소기업 지원, 청년 고용률 상승 등의 성과가 부각되지만, 정작 비정규직 확대 등 해결해야 할 구조적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는 지적이다. 변 부연구위원은 “정부가 단기 성과에 집중하는 사이, 청년 고용의 질적 문제는 외면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효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상담 및 고용서비스의 전문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대학 내 상담사가 심리 상담, 직무 분석, 노동시장 동향 파악 등의 분야를 전담하도록 분화시키고 이를 지속적으로 재교육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다. 임 교수는 “취업 시장과 기업의 요구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인력을 분야별로 나눠 배치하고 전문화를 위한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청년의 안정적인 일경험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강소기업에 대한 평가 및 점검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기업의 단계적인 청년 고용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누적적으로 청년 친화적 요건을 충족했는지 정부가 평가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방식이다. 김 센터장은 “강소기업의 강점을 유지하면서 미흡한 부분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는 강소기업의 사후관리 강화, 실시간 모니터링, 근로자 피드백 시스템 구축 등 제도와 이를 관리하는 지점이 전반적으로 보완돼야 한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청년과 취업 시장의 요구를 반영하는 직무 훈련 지원이 뒷받침된다면 취업 능력 향상에 효과적인 영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 이를 위해 OECD 국가에서도 청년취업을 상위권 국가인 독일의 ‘이원적 직업교육훈련 제도’가 대안으로 거론된다. 이 제도는 독일의 사업장과 직업학교에서 견습생 신분으로 일하며, 사업주와 계약을 맺고 직업교육과 실무 훈련을 병행하는 방식이다. 정부가 체계적인 교육 커리큘럼을 지원하고 기업과 노동계가 직접 훈련을 뒷받침하는 것이 핵심이다. 김 센터장은 “경력적 채용이 확대됨에 따라 청년의 실무 경험 필요성이 높아지는 만큼 우리나라의 상황을 반영한 이원적 직업교육훈련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청년 고용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려면 일관된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장기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사회 구조에 뿌리박힌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권 교체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독일의 경우 전국각지에 직업 교육 시스템이 존재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정부 차원에서 하나의 목표를 갖고 중장기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같은 방안을 통한다면 현실적인 고용 구조 변화를 기대할 것이라는 견해다. 변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고용 정책은 대부분 단기적 처방에 머물러 있다”며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며 추진할 수 있는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전문가들은 청년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정책에 대한 기업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기업이 청년 고용 창출에 보다 적극적으로 협력한다면, 기업 스스로도 필요한 인재를 확보하고 육성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의견이다. 임 교수는 “정부의 지원이 있어도 개인에게 능력 개발의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으로는 정책의 지속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기업이 인재 선발 후 연수, 교육 등을 진행했던 과거와 같이 보다 적극적인 인적 투자 노력이 요구된다”고 역설했다.



'20대가 꼭 알아야 하는 경제 상식' '경제 초보를 위한 경제 개념 10분 요약' 인터넷에서 한 번쯤 봤을 법한 경제 관련 콘텐츠들이다. 대학생이 됐으면 경제개발 상식 정도는 쌓아야겠다고 다짐했는데, 관심을 가져보려 해도 까다로운 경제 용어가 발목을 잡기 일쑤다. 겨우 이해했다 하더라도 경제 뉴스 한 번 읽어볼까 하면 공부했던 기억이 휘발되곤 한다. 경제주체로서 현명하게 소비하고 자신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경제 흐름을 이해하는 능력은 필수적이다. 사회 전체의 경제 흐름을 효과적으로 이해하려면 경제 원리를 알아야 한다. 나아가 이를 사회 문제에 적용할 수 있어야 진정한 의미로 경제를 이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6조 원. 지난해 말 신용회복위원회, 신용보증기금 등 금융공공기관의 대략적인 '대위변제' 금액이다. 대위변제란 서민이나 소상공인이 빚을 갚지 못할 때 이들을 대신해 금융공공기관이 대출금을 대신 갚아주는 제도다. 이 제도는 시장에서 경제 전체의 자금이 원활하게 흐를 수 있도록 돕는 한편,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하며 부실 대출 문제를 유발하기도 한다. 대위변제는 왜 존재하며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 대위변제 관련 경제 이론과 그로 인한 사회적 파장을 들여다보자.

이승희 기자 sun2sideup03@naver.com

정부가 보증하는 도피처, 대위변제



기회를 창출하는 신뢰의 힘

가계, 기업 등의 경제주체는 생활을 영위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자금을 필요로 한다. 이들이 자금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금리나 원자재 가격 등 경제 환경이 예기치 않게 변하면 자금 보유 규모에 불확실성이 발생한다. 자금이 증가할 경우 저축이나 투자가 확대될 수 있지만, 자금이 부족해지면 가계는 생계 불안에 직면하고 기업은 경영 위기, 투자 위축, 도산과 같은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자금 부족으로 경제주체의 경제활동이 저해되면 경제 전체의 불확실성이 가중된다. 이는 화폐의 시간적 가치로 설명된다. 화폐는 현재의 화폐가 미래의 화폐보다 큰 가치를 가진다. 이는 자금을 즉시 활용하지 못하면 그만큼 경제적 기회와 효용이 감소한다는 의미다. 일례로 기업이 시의적절한 설비 투자를 단행하지 못할 경우 생산 기회를 상실하고 수익 또한 감소한다. 이로 인해 경제주체는 미래에 대한 선택을 보류하며 경제 전체의 불확실성을 더한다. 양주영(한국개발연구원 거시·금융정책연구부) 부연구위원은 “가계와 기업에 추가 자금이 제때 제공되지 않으면 경제활동에 필요한 재화를 활용할 수 없게 돼 경제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경제적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경제주체는 현재 자금을 확보하는 수단 중 하나로 '대출'에 의존한다. 대출은 담보나 신용을 바탕으로 자금을 차용하는 행위로, 은행 등의 금융기관을 통해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연결된다. 은행의 중개를 통해 여유 자금을 보유한 경제주체는 저축 이자를 받고, 은행은 저축으로 또 다른 자금이 필요한 경제주체에게 대출을 제공한다. 서상원(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은행 등의 금융기관은 자금의 수요자이자 공급자로서 책임성을 갖고 금융중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며 경제 효율성을 높인다”고 전했다.

대출 계약의 핵심은 '신용'이다. 신용이란 일정 기간 내에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과 그에 대한 신뢰를 의미한다. 은행은 신청자의 소득, 자산, 부채, 상환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용을 평가한다. 신용은 대출 한도와 이자율 결정의 기준이 되며 신용의 정도가 높을수록 보다 낮은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양 부연구위원은 “신용은 신뢰를 제공함으로써 자금 활용에 드는 비용을 절감해 자금시장에서의 핵심적인 기능으로 작용한다”고 밝혔다.

신용이 자금시장의 기반이 되는 만큼 신용에 대한 평가는 더욱 강조된다. 신용이 정확히 평가되지 않으면 대출 기관은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크며 반대로 상

환 능력이 충분한 채무자가 과도한 이자율을 부담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위험에 대응하고자 금융기관은 신용을 재차 보증하는 담보를 요구하기도 한다. 담보란 채무자가 빚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처분해 금융기관의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자산을 의미한다. 자가용, 부동산 등이 이에 해당한다. 담보를 통해 금융기관은 위험을 분산시키고 신용이 낮은 경제주체에게도 자금 조달의 기회를 제공한다. 신용과 담보를 기반으로 대출 계약이 체결되면 채무자는 약속한 기한 내에 대출금을 상환할 의무를 지닌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개인의 실직 등으로 인해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상환 불이행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때 금융공공기관이 채무자를 대신해 대출금을 상환하는 제도가 '대위변제'다. 이는 보증기관이 채무자의 채무를 대신 상환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손실을 막는 방식으로, 신용이나 담보 능력이 취약한 청년, 서민, 소상공인이 주된 대상이다. 보증기관이 대신 변제하면 금융기관은 부실채권을 방지할 수 있고 더 많은 신용 대출을 가능케 하는 기반을 마련하며 금융시장 내 유동성을 제고하는 효과를 갖는다.

대위변제는 자금 흐름의 안정성과 취약계층 보호 측면에서 분명한 장점을 지니지만, 동시에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도덕적 해이란 경제주체가 자신의 선택에 따른 위험이나 손실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할 때, 신용하지 못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경제 개념이다. 이는 상환에 대한 책임 의식을 약화시키고 감당할 수 없는 규모의 대출을 무리하게 실행하게 할 수 있다. 금융기관 또한 채무자의 신용보다 보증인의 존재만을 근거로 대출을 과다하게 승인할 위험이 커진다. 대출 남발은 금융시장의 불안정을 심화시키고 금융기관은 손실을 회피하기 위해 신규 대출을 억제하면서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

정부와 금융기관은 이러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위변제를 비롯한 보증 제도를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정부가 직접 대위변제를 시행하거나, 보증기관의 책임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금융기관과 채무자, 정부 간의 이해관계를 조율하며 균형 있는 금융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서 교수는 “대위변제 등의 보증제도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보증기관은 신용도를 정확히 평가하도록 관리하는 등의 노력이 이뤄진다”고 전했다. 이어 양 부연구위원은 “대출과 신용은 경제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 뒤로 숨은 대출시장

금융공공기관의 대위변제 규모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개 금융공공기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위변제액은 16조 3,142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18.4% 증가한 수치다.

청년·서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대위변제 규모가 급증하면서 금융당국이 변제금 대부분을 부담하고 국민 전체가 개인의 채무를 대신 떠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대위변제는 개인의 대출을 정부 재정, 즉 세금으로 메꾸는 방식이다. 본래 대위변제는 청년, 서민 등에게 자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 수단이었으나, 최근에는 정부의 재정이 과하게 투입되는 실정이다. 통계청의 「신용보증 규모」에 따르면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규모는 2019년 52.2%였으나 지속 상승해 2023년 기준 81.6%를 보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의 대위변제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은행은 오히려 대위변제 보증대출을 확대하며 문제를 키우고 있다. 대학생, 청년의 금융 애로 해소를 목표로 금융당국이 마련한 보증 상품인 '햇살론 유스'가 대표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남근(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햇살론 대출 공급액 현황」에 따르면 햇살론 유스의 경우 2020년 2,234억 원에서 2023년 3,016억 원으로 약 35% 증가했다.

정부의 대위변제에도 불구하고 신속채무조정이 증가하며 도덕적 해이 강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된다. 신속채무조정은 30일 이하로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채무상환을 유예하거나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제도로, 최대 10년까지 분할 상환이 가능하다. 해당 제도는 일반 채무조정보다 신용회복에 유리하다는 차이를 지닌다. 지난 1월 신용회복위원회가 상술한 기관 소속 김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신속채무조정 신청자 수는 4만 5,832명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당국의 재정 지출 증가는 정부의 대응방안 미흡에서 비롯된다. 상술한 오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2022년 대비 2023년 대위변제 금액이 8조 원가량 급증하는 형태를 보였다. 그럼에도 정부는 대위변제 재정 관리를 시행하지 않은 것이다. 윤영훈(한국국제재정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은 “경기침체 등의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대위변제 증가는 예측이 가능했으나 정부의 선제적인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은행의 상환 능력 심사 부실이 보증대출 상품 판매

증가의 원인으로 제기된다. 대출 과정에서 은행은 개인의 상환 능력을 면밀히 검토해 적절한 대출 한도와 변제 가능성을 판단해야 한다. 그러나 이를 소홀히 한 채 정부의 보증을 기반으로 이자 수익을 확보하는 데 집중하는 실정이다. 지난 16일 KB·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금융지주의 지난해 연간 순이익은 18조 8,742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1조 7,811억 원 증가한 실적이다.

정부가 채무자의 상환 능력 회복 기반을 마련하지 못한 점이 신속채무조정 증가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실질적인 재정 지원 체계나 상환 능력 회복을 위한 방안 없이 단순히 상환을 유예하는 신속채무조정 규모만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채무자는 장기적 유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놓이게 된다는 견해다. 서진형(광운대학교 부동산법학과) 교수는 “고기를 주기보다는 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지만 단편적인 교육 제공 형식으로 정책이 미흡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이 대위변제 부담을 모두 떠안지 않도록 담보인정 비율을 검토하고 선제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대위변제는 금융당국이 보증하지만 금융기관이 대출을 증가하므로 정부와 은행이 책임을 나누어 한다는 의견이다. 금융당국의 총보증 한도를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의 보증 비율을 높이는 방안이 제시된다. 윤 초빙연구위원은 “정부의 보증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정부의 대위변제 보증 비율을 줄이고 은행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의 보증을 근거로 금융기관이 대출을 남발하지 않도록 위기관리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대출 리스크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위기가 커질 경우 유동적으로 대출 조건을 재조정하는 형식이다. 또한, 대출 조건 변경으로 신뢰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고위험 대출과 저위험 대출에 대해 상환 능력을 고려해 적절한 한도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다.

채무자의 상환 능력 회복을 돕는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는 단기적인 유예나 채무 조정만으로는 채무자의 근본적인 재정 회복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상환 능력 회복을 위해 대위변제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회생 재정을 지원하며 금융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서 교수는 “채무자의 근본적인 재정 회복을 위한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전했다.

세상을 등진 청년, 다시 세상과 마주하다

은둔 청년을 위한 기업 안무서운회사 유승규 대표



사진 제공 : 안무서운회사

친구를 만나 함께 밥을 먹고 여가생활을 즐기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흔한 일상이다. 그러나 이러한 일상을 위해 두려움을 이겨내고 세상 밖으로 나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 바로 고립·은둔 청년(이하 은둔 청년)이다. 은둔 청년은 타인과 유의미한 사회적 관계가 부족하고 사회활동이 현저히 줄어 취약하지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지 체계가 부재한 청년을 말한다.

은둔 청년은 우리 주위에서도 쉽게 마주칠 수 있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 은둔 청년의 수는 약 54만 명에 달한다. 그럼에도 은둔 청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아직까지 부족한 실정이다. 어떤 사람은 은둔 청년을 향해 '실패자' 또는 '낙오자'라고 부르며 그들을 더욱 깊은 구렁텅이로 빠져들게 한다.

은둔 시절의 경험을 바탕으로 은둔 청년을 돕기 위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청년이 있다. 바로 '안무서운회사'의 유승규(31) 대표다. 그는 세상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는 은둔 청년의 심터가 되고자 한다. 은둔 청년은 왜 사회로 나오는 문을 걸어 잠갔을까. 그리고 이들의 사회 복귀를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박석희 기자 sukhee121@naver.com

관계의 상처를 관계로 치유하다

유 대표는 자신이 은둔 생활을 하게 된 계기를 말하며 어린 시절을 회고했다. 그는 유년 시절 해외에 계셨던 아버지와 그로 인해 힘든 삶을 살아야 했던 어머니의 모습을 떠올렸다. 아버지의 부재로 인한 공백을 채우기 위해 그의 어머니는 고단한 삶을 살아야 했다. 일과 육아에 시부모님까지 돌보느라 몸과 마음이 지쳐갔고, 이는 유 대표에게 심적 부담으로 다가왔다. 시간이 흘러 아버지가 돌아왔지만, 따뜻한 변화는 찾아오지 않았다. 가부장적인 분위기 속에서 가족 간 대화는 줄어들었고 소통의 단절로 이어졌다. 결국 유 대표는 세상과의 문을 닫고 은둔의 길을 걷게 됐다.

“어린 시절 어머니는 많은 걸 도맡게 되시면서 많이 지치셨어요. 어머니가 자해를 시도하시려는 모습까지 목격했죠. 제가 고등학생이 된 이후에 돌아온 아버지는 굉장히 파괴적인 인물처럼 보였어요. 부부 싸움을 하고 계산 상황에서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것을 아버지께 말씀드렸어요. 제 말을 무시하셨죠. 진심으로 무언가를 얘기해도 상대방에게 닿지 않으니 절망감을 느꼈어요. 이때를 기점으로 은둔 생활에 접어들었던 것 같아요.”

상술한 이유들로 인해 유 대표는 20살부터 23살까지 약 4년 6개월의 기간 동안 은둔 생활을 보냈다. 그의 방은 얼마 되지 않아 악취가 진동하는 쓰레기장으로 바뀌었다. 하루종일 침대 위에 누워 의미 없는 생활만 반복할 뿐이었다. 은둔 생활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도 했지만 소용없었다. 단발적인 노력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은둔 생활 당시에는 인생을 잘못 살았다는 생각만으로 가득했어요.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느낌이었고, 쓰레기장이 된 방을 치우거나 생활습관을 바꾸는 책을 필사해도 무기력함만 더욱 커져갔어요. 제 고민이나 심정을 표출할 다른 길도 없었고요. 인생을 잘못 살았다는 생각이 계속해서 들었죠.”

그러나 유 대표는 포기하지 않았다. 은둔 생활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보던 중 그는 일본의 은둔 청년 지원 기업 'K2인터내셔널'을 발견했다. K2인터내셔널은 은둔 청년을 지원하는 사업에 특화된 사회적 기업이었다. 그는 곧장 해당 기업의 한국 지부를 찾아가 다른 은둔 청년들과 함께 거주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혼자서는 은둔 생활을 극복할 수 없을 것 같다는 마음



사진 제공 : 안무서운회사

▲셰어하우스에 거주하는 인원들끼리 생일 축하 파티를 하는 모습

에서였다. 그가 참여한 프로그램은 은둔 청년의 특성을 존중하며 그들에게 편안함을 선물했다.

“처음 프로그램에 참여했을 때는 한 달 동안 저를 포함한 은둔 청년에게 아무것도 시키지 않았어요. 억지로 할 일을 주었다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걸 기업 측에서 알았던 거죠. 그래서 이 시기에는 편안한 마음을 갖고 다른 은둔 청년들과 은둔 생활이나 기간 등에 대해 얘기해보며 은둔 생활에 대해 복기할 수 있었어요.”

한 달의 시간이 지난 후에는 역할을 맡아 일정한 습관을 쌓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이때 유 대표가 맡은 역할은 아침 식사 당번이었다. 2인 1조로 빌라에 사는 은둔 청년들을 깨우고 많게는 20인분의 식사를 만들었다. 아침 식사 당번은 그로 하여금 책임감을 함양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됐다.

“같이 사는 사람들을 깨울 때 부모의 입장을 체험해보는 느낌이 들었어요. 함께 생활하는 이들을 깨우고 밥을 먹이는 것은 큰 책임감이 요구되는 행동이에요. 매일 일찍 일어나 식사를 준비하고 다른 사람들을 깨우면서 자연스럽게 규칙적인 습관이 자리 잡히게 됐죠.”

6개월 동안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점차적으로 은둔 생활을 극복해낸 유 대표는 'K2인터내셔널코리아'로부터 일일 체험 제의를 받았다. 은둔 청년들과 만나며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상담을 나누는 일이었다. 그렇게 그는 또 다른 은둔 청년을 돕기 위한 활동을 진행했다. 이때 그가 뼈저리게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은 은둔 청년의 특성에 맞춘 프로그램이었다.

“이 시기에는 은둔 청년을 탐구하는 데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어요. 단순히 은둔 청년에 대한 복지나 방문 상담으로는 절대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했죠. 사회가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은둔 청년이 위축된 상태에서도 할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절실히 들었어요.”

유 대표가 은둔 생활을 극복해내는 데 큰 도움을 줬던 K2인터내셔널코리아는 2021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여파로 폐업했다. 이때 그는 같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2명과 K2인터내셔널코리아의 직원 2명과 함께 안무서운회사를 설립했다. 함께 회사를 설립한 이유는 저마다 달랐지만 K2인터내셔널코리아로부터 도움을 받았던 입장에서 갑작스럽게 회사가 사라지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소중한 보급자리가 상실당하는 기분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K2인터내셔널코리아가 폐업했을 때는 제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느낌이었어요. 회사에서는 내가 맡은 역할이 있었는데 그게 없어지니까 엄청난 상실감이 밀려온 거죠. 그럼에도 처음에는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다는 것에 대한 자신이 없었어요. 긴 시간 동안 은둔 생활을 보냈고 어떤 일을 오랫동안 해본 경험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상황에서 주변 친구들이 제게 용기를 북돋아주며 회사 설립을 제안했어요. 그렇게 탄생한 회사가 바로 안무서운회사죠.”

또 다른 '나'에게 손길을 건네다

안무서운회사는 다른 은둔 청년을 지원하는 회사와 달리 은둔 청년 출신이 운영하는 회사라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모든 구성원이 청년이라는 점도 타 은둔 청년 지원 회사와 차별화되는 점 중 하나다. 세상에 대

해 두려움을 느끼는 은둔 청년들이 마음놓고 자신의 이야기를 말할 수 있게끔 안무서운회사라고 이름을 지었다.

“보통 우리가 고민을 털어놓는 사람은 '안 무서운 사람'이에요. 내가 민감한 얘기를 꺼내도 비판할 것 같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많은 곳도 있어야겠다는 생각에서 안무서운회사라는 이름이 나오게 됐어요. 아직까지는 회사의 규모가 너무 작기 때문에 이름의 값어치는 실현하지 못했다고 생각해요.”

유 대표는 과거 다른 은둔 청년들과 함께 거주하며 얻은 경험을 토대로 은둔 청년을 위한 지원을 펼치고 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안무서운셰어하우스'(이하 셰어하우스)다. 셰어하우스는 은둔 청년들이 함께 살며 규칙적인 일상을 회복하고 사회로 복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22년부터 시행된 셰어하우스를 거쳐 간 인원은 지금까지 약 20명으로, 이 중 대부분의 인원이 사회로 복귀하는 데 성공했다.

“예전에 K2인터내셔널코리아에서 진행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혼자서는 절대로 은둔 생활을 극복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여기서 영감을 얻은 것이 바로 셰어하우스예요. 은둔 청년끼리 함께 사는 방식을 채택한 또 다른 이유는 혼자서 은둔 생활을 극복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이에요. 상담을 받겠다고 해도 정해진 상담 시간 이외에는 도움을 줄 방법이 전무하죠.”

은둔 생활을 경험해 본 사람은 은둔 청년들과 보다 깊은 공감할 수 있는 판단에서 안무서운회사는 '은둔 고수 양성 사업'도 진행 중이다. 은둔 고수 양성 사업은 은둔 경험이 있는 사람이 양성 과정을 거쳐 은둔 청년을 돕는 '은둔 고수'로 거듭나게 하는 사업이다. 은둔 고수가 되기 위해서는 유관기관 탐방 및 견학, 상담 실습 등의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 은둔 고수는 은둔 청년들과 상담을 진행하며 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준다. 또한 셰어하우스의 은둔 청년들과도 함께 생활하며 은둔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도움을 준다.

“은둔 고수는 은둔 청년들이 사람 사이의 관계와 생활 기술 등을 천천히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요.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듯이 은둔 고수는 일반 상담사보다 은둔 청년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고, 은둔 청년의 방 상태를 보고 은

둔 공간을 대략적으로 가능할 수 있어요. 은둔 경험을 가진 사람이 상담 수련 과정을 거치면 그 사람은 은둔 청년에게 내면을 치유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나아가 유 대표는 은둔 청년들이 사랑의 경험까지 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싶다고 말한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과정이 인간관계에서 많은 깨달음을 주며, 한층 더 성숙해지는 계기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그는 은둔 청년이 사회에서 자립하는 것뿐만 아니라 누군가와 사랑하면서 성장해나갈 바란다.

“사랑만큼 인생에서 중요한 성장의 동력이 되는 것은 없다고 생각해요. 짝사랑을 하거나 헤어지는 과정을 거치면서 자신이 한 행동을 반성할 수 있죠. 하지만 은둔 청년들은 위축된 상태에 놓여있기 때문에 사랑을 나누기 어려운 편에 속해요. 위축된 상태에서도 누군가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 목표예요.”

누구나 은둔 청년이 될 수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만 19~34세 사이의 은둔 청년은 2019년 약 34만 명에서 2021년 약 54만 명으로 증가했다. 이렇듯 은둔 청년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유 대표는 누구나 은둔 청년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갑작스러운 삶의 변화에 잘 대처하지 못할 때도 있기 때문이다.

“개인마다 기질이나 상황에 따라서 은둔의 시기는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은둔은 모든 사람들이 갖는 잠재적인 문제예요. 명문대에 갔는데 경쟁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 해외 유학을 갔다가 실패한 사람 등과 같이 상황에 적응하지 못하면 누구나 무너질 수 있죠.”

마지막으로 그는 청년에게 힘든 상황 속에서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주위에 도움을 청하라고 말한다. 자신의 고민을 얘기하지 못하면 결국 마음의 병에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안 좋은 상황 속에서 완전히 벗어난 후에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세요. 그런 상황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게 중요해요. 용기를 내서 자신의 상황을 얘기하세요. 물론 좋지 않은 결과가 뒤따라올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GTX가 선사하는 '혁명'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가 도래했다. 바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이하 GTX)' 덕분이다. GTX는 서울 및 수도권을 동서남북으로 연결하는 교통수단으로, 수도권 교통난 해소와 장거리 통근자의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일반 열차에 비해 주행 성능이 크게 향상된 GTX의 최고 운행속도는 180km/h로, 기존 지하철 대비 약 3배 이상 빠르다. 이는 경기도 및 수도권 거주자의 출퇴근 이동 시간을 대폭 줄이는 결과로 이어졌다.

GTX는 수도권 교통 체계를 효과적으로 변화시킬 주역으로 평가받는다. 현재 운행 중인 GTX-A 노선에 이어 GTX-B 노선은 2030년, GTX-C 노선은 2028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재문(국립한국교통대학교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GTX-A 뿐만 아니라 GTX-B, GTX-C를 비롯해 GTX-H까지 계획하고 있어 수도권 전역의 교통망이 더욱 촘촘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나아가 GTX는 교통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박은경(동양대학교 도시철도시스템학과) 교수는 "GTX가 지나다니는 역 주변은 접근성 향상으로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며 "GTX는 단순한 철도가 아닌 수도권의 구조와 시민의 생활 패턴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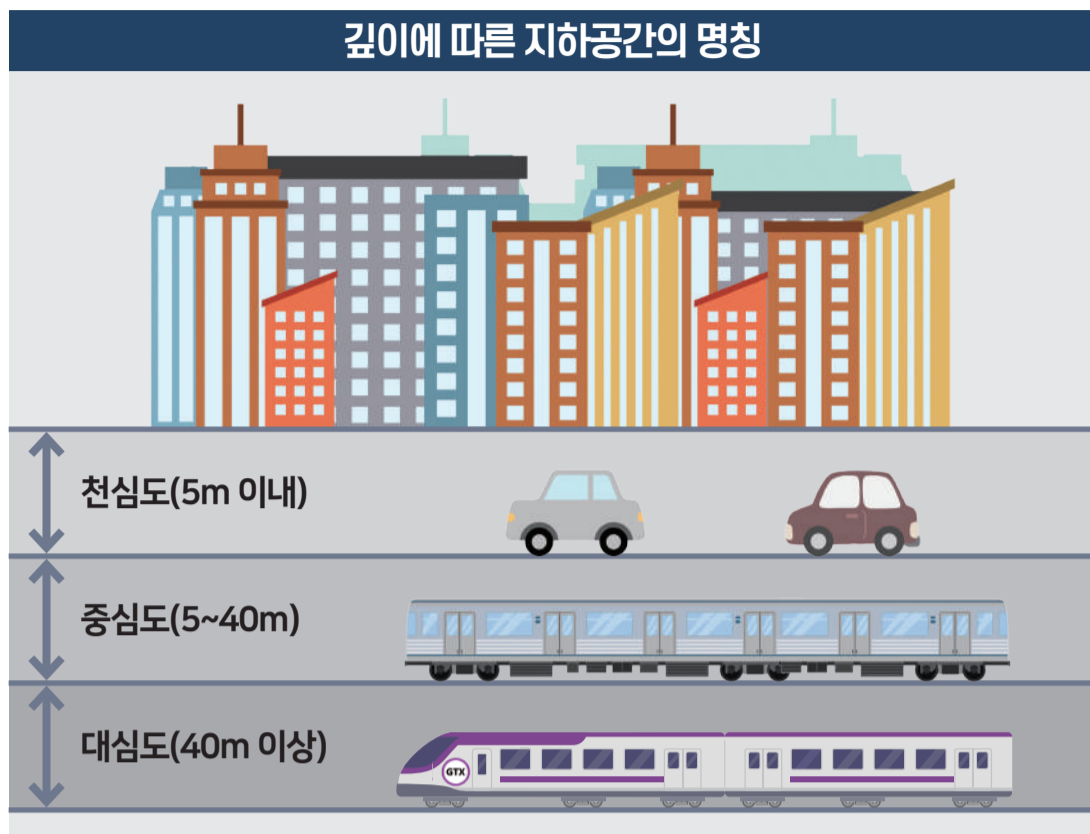
여러 파급력을 지닌 GTX에는 ▲동력분산식 고속열차 ▲영속도 회생제동 방식 ▲TBM 공법 등이 적용됐다. 이러한 고성능 기술을 바탕으로 GTX는 주요 도시권을 지나는 것으로 시민의 이동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교통 혁명'을 선도하고 있다. 김현기(한국철도기술연구원 첨단인프라융합연구실) 책임연구원은 "거리가 멀면 이동에 많은 시간이 들 것이라는 생각을 GTX가 깨뜨렸다"며 "GTX 개통은 고속철도 개통에 이은 또 하나의 교통 혁명"이라고 밝혔다.

늘어난 엔진만큼 빨라지다

GTX의 운행 원리를 알기 위해서는 철도의 운행 원리를 먼저 알아야 한다. 철도는 선로를 바라봤을 때 하늘을 길게 가로지르는 '전차선'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는다. 전차선은 GTX의 지붕 위에 있는 '집전장치'에 전기를 보내는 역할을 한다. 이때 전차선과 집전장치 간 전하의 차이, 즉 물체가 띄고 있는 정전기 양의 차이에 의해 정전기가 많은 전차선에서 적은 집전장치로 전기가 이동한다.

전기를 얻은 철도는 모터 역할을 하는 '견인전동기'를 이용해 운행한다. 견인전동기 내부에는 코일 형태로 도선*이 감겨 있는데, 이때 도선 주위로 집전장치로부터 받은 전기가 흐르면 전기 에너지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인 '전력'이 발생한다. 이때 전력과 동시에 나타나는 힘이 있는데 이 힘이 바로 '자기력'이다. 이는 자석의 N극과 S극 사이에 발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이렇듯 자기력이 생성되면 자연스럽게 자기력이 미치는 공간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자기장'이다. 박 교수는 "전류가 흐를 때 각 도선에서 발생하는 자기장이 합쳐져 더 강한 자기장을 형성한다"고 논했다.

자기장이 형성되면 '전자기력'이라는 힘이 발생한다. 전자기력은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자기장 안에 놓였을



때 발생하는 힘이다. 이렇게 형성된 전자기력은 견인전동기를 회전시키고 결과적으로 GTX를 구동시킨다. 박 교수는 "전자기력의 세기는 전류의 크기, 자기장의 세기, 코일이 감긴 횟수 등에 비례해 증가한다"고 말했다.

기존 고속열차는 양쪽 끝 객차에 동력 장치가 집중돼 있는 '동력집중식 고속열차' 방식을 사용했다. 다만 동력 집중식 고속열차는 동력 장치가 앞뒤 객차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초반에 빠른 가속이 어렵다는 단점을 지닌다.

대신 GTX는 '동력분산식 고속열차' 방식을 적용해 더 빠른 속도로 운행할 수 있게 됐다. 동력분산식 고속열차는 앞뒤 객차를 제외한 모든 객차에 동력 장치가 장착돼 있는 방식을 말한다. GTX와 같이 도시를 가로지르는 열차는 역 간의 거리가 짧고 정차역이 많아 신속한 가속과 감속이 중요하다. 김 교수는 "동력분산식 고속열차는 객차마다 동력원이 있기 때문에 동시에 추진력이 발생해 빠르게 가속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제동하면서 전력을 생산하다

열차에서 제동 장치는 차량의 속도를 줄이거나 멈추는 역할을 수행한다. 제동 방식에는 수많은 방식이 존재하지만,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제동 방식은 바로 '공기 제동'이다. 공기제동은 압축된 공기를 활용해 열차 바퀴의 브레이크 패드를 눌러 마찰력을 이용하는 제동 방식이다. 박 교수는 "공기제동은 중·저속부터 정지하는 순간까지 사용되는 대표적인 제동 방식"이라고 답했다.

공기제동을 통해 열차를 멈추기 위해서는 먼저 열차의 운전자가 제동 핸들을 조작해야 한다. 제동 핸들을 통해 공기 저장 탱크에서 공기가 방출돼 제동 공기 압력이 감소한다. 제동 공기 압력이 낮아지면 각 객차 하부에 장착된 브레이크 실린더가 작동해 브레이크 패드를 열차 바퀴에 밀착시킨다. 이렇게 밀착된 패드는 바

퀴를 강하게 눌러 마찰력을 발생시키게 되고 결과적으로 속도가 줄어들어 열차가 정지한다. 최성훈(한국철도기술연구원 고속철도연구실) 수석연구원은 "공기제동은 브레이크 패드를 이용해 운동 에너지를 열에너지로 변환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공기제동은 열차 바퀴와 브레이크 패드의 마찰로 인해 바퀴와 브레이크 패드 모두 쉽게 마모될 수 있다는 결점을 갖고 있다. 또한 공기제동 시 발생하는 소음과 미세먼지도 탑승객에게 단점으로 작용한다. 김 책임연구원은 "공기제동을 통해 제동력이 급격하게 증가할 경우 열차의 바퀴가 선로 위에서 헛도는 '미끄러짐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접언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GTX는 공기제동이 아닌 회생제동 방식을 채택했다. 회생제동은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며 열차가 감속할 때 발생하는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는 방식이다. GTX 이전에도 회생제동을 사용한 열차는 존재했지만 모두 공기제동을 함께 사용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GTX는 '영속도(Zero Speed) 회생제동 방식', 즉 회생제동을 열차의 속도가 0km/h 될 때까지 사용했다. 박 교수는 "영속도 회생제동은 일반적인 회생제동보다 한 단계 발전한 기술"이라고 전했다.

일반적으로 열차가 주행할 때는 견인전동기에 전기가 공급돼 바퀴를 회전시키지만, 회생제동을 통한 감속 시에는 관성에 의해 바퀴의 회전력이 견인전동기를 돌리게 된다. 열차는 감속 중이므로 열차의 엔진인 견인전동기는 돌아가지 않지만, 감속을 해도 여전히 바퀴는 돌아가기 때문에 바퀴가 견인전동기를 회전시킨다는 뜻이다. 이를 통해 견인전동기 내부의 코일이 돌아가면 전기가 발생한다. 이렇게 생성된 전기는 다시 전차선으로 되돌아가거나 차량 내 시스템에 사용되는 등 다양한 분야에 쓰인다. 박 교수는 "회생제동을 통해 생성된 전

기는 역사 내 조명, 에스컬레이터, 환기 시스템 등의 운영에 활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GTX는 영속도 회생제동 방식을 도입한 덕분에 바퀴의 마모를 줄였다. 나아가 바퀴의 회전을 이용해 추가로 전기 에너지를 생성할 수 있게 됐다. 박 교수는 "GTX는 영속도 회생제동을 통해 에너지 효율성이 높아져 환경 친화적이며 운영 비용도 절감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지하 50m를 가로지르다

GTX가 지나다니는 터널은 지하 약 50m에 위치하고 있다. 도로나 철도 등이 지나다니는 지하공간은 그 깊이에 따라 ▲천심도(5m 이내) ▲중심도(5~40m) ▲대심도(40m 이상)로 구분되는데, 이중 GTX가 지나다니는 공간이 바로 대심도다. GTX가 대심도를 왕래하는 이유는 건물이나 상하수도, 가스관, 통신선 등 다양한 기반시설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영태(한국철도기술연구원 첨단궤도토목본부) 책임연구원은 "대심도에서는 철로를 비교적 자유롭게 직선으로 설계할 수 있어 노선이 단축되고, GTX가 빠른 속도로 운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GTX를 지하 깊은 곳에 지나가게 하기 위해 사용된 공법이 있다. 바로 'TBM 공법'이다. TBM 공법은 터널 굴착 장비인 TBM(Tunnel Boring Machine)을 이용해 암반이나 지반을 깎아 터널을 만드는 방식이다. 주로 한강이나 바다 밑을 통과하는 터널, 지상에 건물이 많거나 지반조건이 상대적으로 불량한 경우에 TBM 공법이 사용된다. 특히 GTX는 기존 지하철 노선 아래에서 운행되기에 고속운행을 위한 직선 위주의 터널이 요구됐다. 때문에 화약발파공법보다 안전하고 깊게 터널을 굴착할 수 있는 TBM 공법이 적용됐다.

TBM을 사용해 터널을 굴착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하에 설치된 '커터헤드'가 회전해 암반이나 지반을 절삭한다. 커터헤드는 TBM의 맨 앞쪽에 설치된 부품으로, 지반의 조건에 따라 암반을 깎아내는 용도 또는 흙을 긁어내는 용도 등으로 설계·제작된다. 이후 절삭된 토사나 암반은 '스크류 컨베이어'를 통해 외부로 배출된다. 스크류 컨베이어는 내부의 컨베이어 벨트를 통해 토사를 TBM의 후방으로 이동시키는 장치다. 이후 커터헤드와 스크류 컨베이어를 통해 형성된 빈 공간에 콘크리트로 제작된 곡선 형태의 '세그먼트'를 조립한다. 이때 세그먼트와 지반 사이에 미세한 틈이 발생하는데 이 공간에 시멘트나 점토 등으로 이뤄진 '그라우트'를 주입한다. 이렇게 조립된 세그먼트 사이에 그라우트까지 주입되면 우리가 아는 형태의 터널이 완성된다.

TBM 공법은 기존에 터널을 굴착하기 위해 사용되던 화약발파공법의 단점을 보완한 기술이라고 평가받는다. 화약발파공법보다 진동과 소음이 적을 뿐만 아니라 콘크리트로 제작된 원형의 세그먼트를 조립하기 때문에 터널의 안정성 확보에도 용이하기 때문이다. 최 책임연구원은 "TBM 공법은 발파에 의한 먼지 발생과 주변 환경 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다"며 "지반 붕괴의 위험이 줄어들어 보다 안정적인 시공이 가능하다"고 논했다.

*도선 : 전류를 통하게 하는 쇠붙이 줄

박석희 기자 sukhee121@naver.com

2025년 3월 4일 ~ 4월 27일

ROTC

후보생을 모집합니다

- 3.5이상 학점 시 100% 장학금 지원! (3.0 이상 시 70%, 3.0 미만 시 50%)
- 단기복무장려금 1200만원
- 매 학기 여우보생 장학금 100만원
- 입영훈련 봉급, 학군생활지원금 등

엄청난 장학금!

멋진 기회들!

다양한 활동!

한성대 학군단 모바일 홍보관 >>

모집요강, 인터넷 접수 >>

문의 02-760-4178 한성대학교 학군단 행정실

*외부 필자의 칼럼은 본사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삼 학 송 · 시국에 대한 침묵의 끝은 어디인가

대학가에서 연일 이어지고 있는 탄핵 시국선언에 본교도 동참했다. 다른 학교처럼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지는 않았다. 외부 인원이 학내로 침입해 충돌하는 일도 없었다. 학교 정문과 성북천 분수마루광장에서 각자 집회를 진행한 후 해산했다.

한성대학교에서 열린 집회지만 본교 재학생의 참여는 저조했다. 10명도 채 되지 않는 소수의 인원이 주도한 것이 전부였다. 대부분의 학생이 집회에 관심을 갖지 않고 현장을 지나쳤다.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타 학교 사례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심지어는 정문에서 탄핵 찬성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이들을 향해 통행을 방해한다고 비난하거나 비방하는 여론이 형성되기도 했다.

비단 우리 학교만의 문제는 아니다. 다른 학교도 소수의 학생이 집회를 주도하고 있다. 많은 대학생이 현 시국에 대해 무관심하다는 방증이다. 과거에는 민주화를 위해 대학생이 거리를 가득 채웠다면, 현재는 학생들의 무관심 속에 집회가 이어진다.

대학생이 더욱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 과거부터 부당한 일이 있으면 밧 밧고 나서서 목소리를 냈던 이들이 바로 대학생이다. 본교 졸업생이 이번 집회에 참여한 것도 과거 군부독재로부터 민주주의를 사수한 이들이었기

때문이다. 국가가 위태로울 때 나서서 국가를 위해 싸웠던 이들이 또 다시 나섰다. 대학생이 내는 목소리가 갖는 힘을 알고 있는 이들이 대학생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다시 학교를 찾은 것이다.

하지만 대학생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소수의 학생들이 집회를 주도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만이 전부다. 학생사회에서 주도적으로 나서서 입장을 표명했다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들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대학생이 내는 목소리가 갖는 힘을 알기에 외부인이 대학을 방문해 집회에 동조하지만, 정작 대학생은 알지 못하는 점이 아쉬울 따름이다. 대학생으로 하여금 현 시국에 대한 정확한 고찰과 명확한 의견 표명이 필요하다.

정치에 큰 관심이 없는 대학생은 '갈대다. 표심을 얻기 위한 정치인과 유튜브의 자극적인 언행에 이리저리 흔들린다. 명확한 이유도 모른채 선동당해 상대를 비방한다. 이로 인해 갈등은 극한으로 치솟고, 갈등의 양상은 갈대밭에 질러진 불처럼 순식간에 퍼져나간다. 이리저리 흔들리는 이들에게 묻고 싶다. 갈대처럼 이리저리 흔들릴 것인가, 혹은 뿌리깊은 나무처럼 흔들리지 않고 현 상황을 타개할 방안을 찾을 것인가.

김유성 편집국장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난 반도체 노동자 故 황유미 씨를 추모하는 '고 황유미 18주기 추모 반도체특별법 폐기 결의대회'가 지난 6일 삼성본관 앞에서 진행됐다. 그의 사망 이후에도 114명의 노동자가 희생됐다. 그럼에도 정부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예외 적용하는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노동자의 희생이라는 병든 씨앗으로부터 국가 산업이 발전한다면, 그 씨앗에서 성장한 나무가 울곧게 자랄 수 있을까. 번성하는 반도체 산업 속 소외된 노동자를 위해 정부는 특별법 제정을 재고해야 한다. 박석희 기자 sukhee121@naver.com

■ 기사수첩 협오의 물살에 휩쓸리지 않도록

“멸공! 화교쟁개 대청소하라.” 지난달 명동 중국대사관 앞에서 열린 멸공 페스티벌에서 울려 퍼진 구호다. 온라인에서만 만연하던 중국인 혐오가 대학 현장에서도 거리를 가득 메우고 있다. 대학가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가 이어지며, 특정 집단을 겨냥한 적대감이 조직적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그 여파로 대학 내 중국인 유학생이 혐오의 최전선에 내몰리고 있다.

혐오 선동자들은 중국 정부가 우리나라에 정치공작을 펼쳤다는 의혹을 발단으로 혐오를 가감 없이 표출한다. 중국인 유학생이 '화교특별전형'을 통해 우리나라 의과대학에 시험을 치르지 않고 입학한다는 주장을 내세우며 혐오를 전파시킨다. 실제로 본교 인근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

회에서도 이 같은 주장이 재학생을 통해 공개적으로 발표되기도 했다. 그러나 현행 대학 입시 제도에는 이러한 명칭의 전형이나 지원 자격 조건은 전무하다.

선동과 날조 그 자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진실로 받아들이며 그들은 '정신승리'라는 알팍한 위안을 얻으려는 듯하다. 정치, 경제, 사회의 불안이나 개인의 어려움을 외부의 특정 대상에게 전가함으로써 슬기했다는 심리적 위안을 얻으려는 것이다. 결국 '탓할거리'를 만들어내 잠시의 어려움에서 눈을 돌리려는 비합리한 행태를 보인다.

그들에게 중국은 안성맞춤이다. 제대로 알지 못하는 다른 이념, 다른 문화, 다른 언어를 지닌 나라. 늦게 출발해 빠르게 성장한, 익숙하면서도 낯선 존재는 혐오의 배출

구로 작용해도 자신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존재다. 이곳에서만큼은 한국인이 주류를 이루기에, 혐오의 화살은 중국인이라는 표적을 향해 날아간 것이다.

청년은 혐오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 전인적(全人的) 교육을 강조하는 대학의 구성원으로서, 지성과 윤리를 겸비한 존재로 성장해야 한다. 지적 탐구와 도덕적 성숙이 조화를 이룰 때, 사회 전체를 도덕적으로 고양하는 주체로 자리할 수 있을 테다. 청년들이 혐오를 감별하고 책임 있는 표현과 행동의 기준을 고민하며 단순한 시대의 산물이 아닌, 공동체의 건강한 사회 일원으로 바르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하길 진정으로 염원한다.

이승희 기자 sun2sideup03@naver.com



■ 낙산에 올라 섬광

사회적 지위가 꽤나 있는 사람의 강연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푸짐한 풍채에 명품 같은 수트를 빼입고 반짝거리는 구두를 신고 있었습니. 강연에서는 본인의 업적을 나열한 강연자료, 신빙성 없는 연구나 기사를 가져와 황설수설 식은 땀 흘리는 것을 보며 인내심을 안고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아까워 불쾌함마저 느꼈습니다. 그 강연실에 뭐라도 언어나가려 앉아 있는 사람들과 그 강연을 준비해준 사람들. 어림잡아 70명은 되는 인간들. 강연자가 그 사람들의 노고와 시간을 살 수 있을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었나고 묻는다면 글썽요. 그 후 며칠 뒤에 소설로 상을 수상했다던 한 작가의 강연을 듣게 되었습니다. 듣는 사람만 200명

이 넘는 규모에 강연장 또한 그에 맞춰 거대했습니다. 작은 체격의 작가는 평소 입고 다니는 듯한 단정한 복장에 별다른 자료 없이 그냥, 차분히 본인의 삶을 읊조렸습니다. 무대 위 한 명의 작은 인간이 혼자 우뚝서 거대한 강연장을 한순간에 가득 채우고, 강연이 끝난 뒤에도 그 인간의 목소리가 내었던 에너지가 잔존해 빈 공간을 채우고 있다는 느낌은 동경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매직이 지워지지 않을만한 소중한 물건에 그 작가의 싸인을 받았고, 그 순간은 지금도 아끼는 추억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누군가는 새로운 꿈을 얻어 가기도 했습니다. 능력 좋다면 인간과 그 작가의 차이점을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과거의 잘나했던

빛을 지키려는 불안한 이와, 잘나있던 빛은 어느새 거두어 마음 한 켠에 꽂아두고 더 밝은 빛을 쫓는 이. 후자의 인간이 읊조리는 한마디의 에너지가 월등하게 커서, 지루할 틈 없이 매료되었던 것입니다. 그 차이점을 생각하며 크게 느낀 점을 이 글을 읽게 되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습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과분한 자리에 올라있는 사람은 매사에 불안할 것이고, 부족한 자리에 잠시 머무는 사람은 매사에 당할 것입니다. 틀린 반은 스스로 메우고 각자의 시작점에서 최선을 다 해주세요. 당신의 가치를 죽는모양이 아닌 살아가는 모양에 부여해주세요.

허필건(사회과학 3)

■ 의화정 취업경쟁에서 이기는 방법

미국의 영화배우 아놀드 슈워제네거는 오스트리아에서 최연소 미스터 유니버스였고, 미국으로 이민 가서도 무려 12개의 보디빌더 우승컵을 거머쥐었다. 이후 할리우드의 영화배우로 변신해서 터미네이터의 "I'll be back"이란 명대사를 남기며 미국 영화사에 큰 족적을 남긴 배우가 됐다. 거기서 끝이 아니다. 아놀드는 그 후 2010년까지 캘리포니아 주지사로 정치인생을 살기도 했다. 이렇게 다양한 영역을 넘나들면서 매년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는 아놀드에게는 생각부터 남들과 다름이 있었다. 승리를 하는 것은 경쟁하러 나온 사람의 몫이 아니라 이기려고 나온 사람이 가지고 가는 것이라는 신념이 있었고, 이기기 위해 그는 전략적인 면을 포함한 모든 면에서 최선을 다했을 것임에 틀림없다. 결과적으로 이기는 자리에 미리 서있는 자세였을 것이다.

회사에 이미 취직해서 사회생활을 하는 학교 선배들은 승진이라는 인생의 작은 목표들이 끊임없이 나타난다. 대학처럼 일년이 지날 때마다 계급처럼 학년이 높아지는 사회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회사의 인사부와 직원을 관리하고 있는 팀장들은 여러 경로로 직원들의 성과와 역량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다. 요즘의 MZ세대들은 승진하기도 싫고, 월급을 더 받기 위해 자기 생활을 희생하기도 싫다고 한다. 그러나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다. 보이지 않게 묵묵히 스스로의 길을 닦으며 자기의 시간이 올 때를 기다리는 젊은 사람도 있게 마련이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사원일때도 과장이 됐다는 마인드로 회사의 일에 임한다. 이러한 마음가짐이 강하다면 모든 면에서 남들과 다른 점이 드러나게 돼있고, 자연스럽게 관리자들의 눈에 띄게 된다. 때가 되거나 아니면 예상외로 빠르게 진짜 과장으로 승진이

될 수도 있다. 아놀드의 사례나 직장에 다니고 있는 선배들의 승진 사례와 마찬가지로 대학생들의 취직도 이기는 방법을 깊게 생각해본다면 의외로 쉬운 길을 찾을 수 있다. 목표로 하고 있는 회사에 이미 취직을 했다고 생각해 보자. 먼저 취직한 선배들에게 회사의 일하는 분위기는 어떨지, 일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등을 물어서 익혀 놓으면 면접 때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내가 아는 것을 말 할 수 있도록 면접관을 유도할 수 있다면 금상첨화다. 인사부에서는 시험점수도 중요하지만, 회사에 들어와서 오랫동안 잘 적응할 인재를 찾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내용은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시간을 가지고 준비하는 것이 치열한 경쟁을 뚫고 희망하는 회사의 취직에 성공하는 길이다.

김동철(시응용학과) 교수

기자사령
임
수습기자 진수정(인문 3) 김혜윤(상상력 1)
임지민(사회과학 1) 이한비(상상력 1)

동정란
이지영(상상력교양대학 소양·핵심교양학부) 교수
이 교수는 지난 1월 1일부터 2년간 '한국여성심리학회'의 학회장을 맡았다.
신재흠(교육대학원) 교수
신 교수는 지난 3월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의 이론과 실천' 도서를 출판했다.
김동철(시응용학과) 교수
김 교수는 하이테크정보에 「가상화폐는 21세기 연금술인가」 칼럼을 게재했다.

한성대신문사 02876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116 Tel 02)760-4186
발행인 이창원 편집인김주환 김남용 편집국장 김유성 디자인 (주)나눔커뮤니케이션

제19회 사진공모전

빛의 조각이 엮어낸
순간의 서사



공지사항 바로가기

- 모집기간 3월 17일(월) ~ 4월 25일(금)
- 참가대상 본교 학부 재학생
- 시상내역 최우수작(1명) : 상장 및 상금 40만 원
가작(1명) : 상장 및 상금 20만 원
- 비교과 포인트 대회참가 10pt / 당선 후 수상소감 작성 시 10pt 추가 지급
- 문 의 한성대신문사 02)760-4186 / 인스타그램 @hansungnews
카카오톡채널 @hansungnews